차 례

제1과. 아버님을 따라서 2
제2과. 중강에서의 글공부 4
제3과. 망을 보시며 7
제4과. 일본놈의 아이들이 꼼짝 못하게 10
제5과. 활쏘기놀이를 하시며 14
제6과. 등산놀이 17
제7과. 린쟝소학교에 입학하시여 20
제8과. 중강나루터에서 23
제9과. 린쟝에서의 군사놀이 25
제10과. 탄약도 날라오시며 28
제11과. 나에게 총을 하나 줘요 31
제12과. 조선식씨름으로 34
제13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신 마음 37
제14과. 집안의 기둥 40
제15과. 어려울 때 도와주는게 동무다 43
제16과. 바다오거우로 이사가시며 45
제17과. 압록강가에서 새기신 어머님말씀 48
제18과. 뛰여나게 공부를 잘하시여 51
제19과. 고향을 그리워하시며 54
제20과. 학교를 꾸리는데서도 모범 57
제21과. 순사놈의 말문이 막히게 59
제22과. 조선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63
제23과. 경찰 아들놈을 혼내우신 이야기 65
제24과. 어머님께 사다드리신 고무신 68
제25과. 마사버린 《상공당》 71
제26과. 작문 《우리 나라》 74
제27과. 비밀련락을 맡아하시며 77
제28과. 야장간할아버지를 도와 80
제29과. 조국을 알아야 한다 82
제30과. 조국으로 떠나시던 날 85
제31과. 배움의 천리길 88
제32과. 만경대고향집에 이르시여 93

제 1과
아버님을 따라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8살 나시던 주체8(1919)년 초가을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을 따라 어머님과 함께 중강으로 가게 되시였습니다.

만경대를 떠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신안주까지 가시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철길이 없기때문에 중강까지 걸어가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을 따라 높은 령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걷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길이 어찌나 험한지 새 짚신도 얼마 못 가서 해지군 하여 맨발로 걷는 때가 많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험한 길을 힘들게 걸으시다가 지나가는 달구지가 있으면 잠간씩 얻어타기도 하시였으나 중강까지 거의나 걸으시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머님을 먼저 생각하시며 올리막길이 나서면 어머님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날을 걷고 걸으시여 마침내 중강에 이르시였습니다.

중강에 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집안식구들은 중강객주집에 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중강에 오신 다음날이였습니다.

주인집아이와 재미나게 노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림방 웃층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의 손목을 잡고 중강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창문으로 다가가시였습니다.

거리의 한복판에는 일제놈들의 집들이 밉살스럽게 서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집들을 가리키시며 일제놈들은 저런 집에서 살면서 우리 인민들을 억누르며 잡아다 죽인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때려부셔야 우리가 잘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며 어려서부터 일제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일제놈들을 기어이 때려부시고야 말 마음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제 2과
중강에서의 글공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중강에 오시여서도 글공부를 열심히 하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침식사가 끝나자 2층다락으로 올라가시였습니다.

주인집아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에 매일 아침마다 다락으로 올라가실가 하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등뒤에서 살그머니 넘겨다보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락에 사람이 들어오는것도 모르고 열심히 책을 보고계시였습니다.

주인집아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저 그림이나 보시는줄 알았는데 그 책에는 그림이 아니라 글자만 가득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림은 하나도 없이 글자만 있는 책을 무슨 재미로 보실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방해가 될가봐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다락에서 내려가다가 그만 소리를 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인집아이를 찾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올라왔다가 왜 그냥 내려가는가고 하시며 공부를 하고싶거든 와서 앉으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다락에 올라온 주인집아이는 대원수님께서 보시던 책을 이리저리

뒤적거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인집아이를 바라보시다가 글을 아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아이는 글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누구나 글을 잘 알아야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하시며 이제부터라도 글을 열심히 배우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집아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으로부터 글을 배우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인집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주시면서도 책을 부지런히 읽으시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조선지도와 그림도 멋있게 그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시였기때문에 학교에 다니시기 전부터 참으로 많은것을 알고계시였습니다.

제 3과
망을 보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던 중강 객주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버들숲이 우거진 작은 늪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늪에서 자주 낚시질을 하는척 하시면서 동지들과 비밀모임을 가지군 하시였습니다.

그때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와 함께 늪옆에서 노시며 누가 오지 않는가 망을 보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도 아버님께서는 동지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낚시대를 들고 늪으로 나가시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인집아이를 데리고 늪으로 나가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벌써 낚시줄을 드리우고 앉아 계시였습니다. 주인집아이는 너무 좋아 달려가 아버님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지 않던 사람들이 늪으로 모여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그 사람들과 비밀모임을 가진다는것을 아시고 주인집아이에게 자치기놀이나 하자고 하시면서 큰길로 나가시였습니다.

주인집아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큰길로 나가면서 자치기막대기와 메뚜기도 없는데 어떻게 자치기놀이를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허리춤에서 자치기막대기와 메뚜기를 꺼내시였습니다.

이어 자치기놀이가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치기놀이를 하시면서 자주 길 량쪽과 늪주위를 눈여겨 살피시였습니다.

자치기놀이가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마을쪽에서 웬 사람이 늪쪽으로 오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참동안 그놈을 살펴보시다가 동무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놈이 너의 집 근처에 자주 나타나군 하는 수상한 놈이다.》

그러시고는 큰소리로 《한자, 두자 …》 하며 땅을 재시였습니다.

주인집아이는 그때에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나쁜 놈이 오지 않는가 망을 보고계신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또 셈세기가 나쁜 놈이 나타났다는



중강낚시터

신호라는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받고 재빨리 헤쳐져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여느때와 같이 낚시줄을 드리우고 고기를 잡는척 하시였습니다.

나쁜 놈은 늪까지 와서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한

참동안이나 살피였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가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님께서 비밀모임을 가지실 때면 스스로 망을 보시며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와드리시였습니다.

제 4과
일본놈의 아이들이 꼼짝 못하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중강에 오신지 여러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동무들은 한데 모여 자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동무들의 놀이를 구경하고계시는데 왜놈아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그놈은 조선아이들이 거지놀음을 한다고 침을 밷으며 그들이 가지고 놀던 자치기막대기를 빼앗았습니다.

조선아이들은 그놈에게 달려들어 자치기막대기를 도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자치기막대기를 휘두르며 조선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더는 참을수 없으시여 그놈의 멱살을 틀어잡고 콱 밀쳐버리시였습니다.

왜놈아이는 비칠거리며 뒤로 밀리다가 어리석게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자기보다 훨씬 어리다는것을 알아보았던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이 휘두르는 자치기막대기를 날쌔게 잡아쥐고 그놈을 쏘아보며 따져물으시였습니다.

《이놈아! 가만있는 아이는 왜 때려? 아이들 노는데 왜 방해하는가 말야!》

그놈은 겁에 질려 어쩔바를 모르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놈의 꼴을 본 동무들은 힘을 얻고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바빠맞은 그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에게서 자치기막대기를 빼내여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얼른 자치기막대기를 빼앗고 그놈을 자빠뜨리시였습니다.

그놈은 뒤로 벌렁 나가자빠져 일어설 생각도 못하고 두손을 싹싹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을 쏘아보시며 다시는 조선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는것을 말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놈은 무릎을 꿇고앉아 다시는 조선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아이들도 조선아이들을 때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왜놈아이한테서 다짐을 받으신 다음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일본놈들은 조선사람을 잡아가는 나쁜 놈이다. 그러니 그놈의 아이새끼들도 같은 놈들이다. 그놈들이 무어라고 하면 우리모두 모여붙어 혼을 내주자!》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시며 우리 조선사람들이 일본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있는것만도 분한데 그놈들의 아이놈들까지 조선아이들을 못살게 구는것을 보

고는 참을수가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왜놈을 보기만 해도 가슴에서 불이 인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그런 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후 일본놈아이들은 조선아이들을 다치지 못하였습니다.



중 강 승 리 터

이때부터 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일본놈의 아이를 때려눕힌 그 자리를 《승리터》라고 불렀습니다.

제 5과
활쏘기놀이를 하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중강에 계시던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아침공부를 마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당에서 여러개의 활을 만드시였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던 주인집아이는 무슨 활을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서 동무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였습니다.

주인집아이는 곧 달려가 10여명의 동무들을 데려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여온 동무들에게 활을 하나씩 나누어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오늘은 활쏘는 놀이를 하자고 하시며 동무들을 데리고 압록강가로 나가시였습니다.

강가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지고온 허수아비목표를 땅에 든든히 세워놓으시였

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허수아비를 가리키시며 저것은 왜놈순사인데 이제부터 왜놈을 쏘는 놀이를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먼저 목표를 겨누고 화살 3개를 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활줄을 당겼다 놓으실 때마다 화살은《씽-》하고 날아가 목표에 꽂혔습니다.

동무들은 그때마다《맞았다!》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차례로 활을 쏘게 하시였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한번씩 다 쏘아보았지만 누구도 목표를 맞히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동무들이 쏜 화살은 목표에 가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동무들은 활쏘기놀이가 재미있다고 웃으며 떠들어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동무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활쏘기를 그저 장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외적을 무찌를 힘을 키우기 위해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가 활쏘기와 칼쓰는 법을 익히였다고 한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다가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모두 떨쳐나 물리치군 하였단다. 그러니 우리도 활쏘기를 그저 장난으로 하지 말고 왜놈을 쳐부실 장수힘을 키울 생각으로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동무들에게 활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면서 활쏘는 련습을 많이 하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우리가 오늘은 허수아비에 대고 활을 쏘지만 앞으로는 진짜총을 가지고 왜놈을 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활쏘기놀이를 하시면서도 동무들에게 일제놈들을 때려부실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제 6과
등 산 놀 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등산놀이를 즐겨하시였습니다.

날씨좋은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인집아이에게 칠각산에 갔다오자고 하시였습니다.

칠각산은 경치가 아름다왔지만 중강에서 20리나 떨어져있는 높은 산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아이는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앞산에 가서 놀고오자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을 단련하여야 병에도 걸리지 않고 옛말에 나오는 장수들처럼 힘도 쓸수 있다. 장수힘을 키워야 왜놈들과 싸워이길수 있다. 그런 힘을 키우자면 먼길도 걸어보고 험한 산도 올라가보아야 한다.》

그리시면서 어서 가서 마을동무들을 데리고 떠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무들은 칠각산으로 등산을 떠나게 되

였습니다.

험한 길을 걸어 칠각산밑에 이르니 벌써 한낮이 되였습니다.

동무들은 너무 힘이 들어 여기서 놀다가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저 산에 오르지 못하면 래일도 오르지 못하며 앞으로도 영영 오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잠시 쉬고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와 덤불을 헤치며 한참 올라가니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나졌습니다.

《자, 여기서 좀 쉬고 오르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찬물에 발도 씻고 산열매도 따먹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흩어져 발도 씻고 산열매도 따먹으면서 한때를 보냈습니다.

얼마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이끌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이 턱에 닿았지

만 참고견디며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산마루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산마루에 오른 동무들은 너무 좋아 산아래에 대고 고함도 치고 사방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처럼 기뻐하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우냐. 우리가 산밑에서 놀다가 돌아갔으면 이런 훌륭한 경치를 보지 못할번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한번 산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칠각산은 볼수록 아름답고 웅장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동무들에게 이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일제놈들이 빼앗았다고 하시면서 나라를 다시 찾자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에 등산놀이를 하시면서 일제를 쳐부실 힘을 키우시였습니다.

제 7과
린쟝소학교에 입학하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강에 얼마간 계시다가 그해 가을 아버님을 따라 린쟝(림강)으로 이사가시였습니다.

린쟝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나라 중강과 마주하고있는 중국의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린쟝에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9살 나시던 주체9(1920)년 봄에 린쟝소학교에 입학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께 학습장과 연필을 갖추어주시고 옷과 신발까지 깨끗이 손질해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날 나어린 대원수님께 하나를 배워도 나라를 위하여 써먹을수 있게 똑똑히 배워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동무들과 친하게 지내며 공부도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입학하신 첫날부터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다니신 린쟝소학교는 중국사람들의 학교였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중국말로 배워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가시여서는 중국말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시여서는 아버님에게서 우리 글을 배우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께 학교에서 중국



린 쟝 소 학 교

말로 글을 배워주는데 알아들을수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국말로 배워주어도 다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반에서 꼭 1등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배우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배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시였기때문에 1학년에 다니실 때 벌써 웃학년 학생들의 교과서내용을 환히 알고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마을사람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뛰여나게 공부를 잘하신다고 늘 칭찬하였습니다.

제8과
중강나루터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림장에 계시던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련락임무를 받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께 중강에 있는 약방주인에게 편지를 전하고 그가 주는것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시였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과업을 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동무와 함께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느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리운 조국땅 중강나루터에 이르시였습니다.

봄날이라고 하지만 날씨는 겨울날처럼 몹시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도 중강나루터는 살길을 찾아 중국땅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로 차고넘치였습니다. 그들은 다 해진 옷에 크고작은 보따리를 이고지고 검열받을 차례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악독한 일제경찰놈들은 눈을 부릅뜨고 꽥꽥거리

며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몸과 짐을 샅샅이 뒤지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사정없이 발길로 차고 때리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모습은 불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나루터를 벗어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함께 가는 동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살길을 찾아 이 강을 건느는 이주민행렬은 어느 하루도 그칠새 없구나.

당장 씨를 뿌려야 할텐데 이제 저 사람들이 어디가서 땅을 얻어부칠수 있을가. … 다 왜놈들때문이다. 왜놈들을 몰아내면 우리도 고향 만경대에 가서 살수 있고 저 사람들도 제 고향에서 살수 있게 될것이다. 왜놈들을 몰아내야 한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점심때에야 중강에 도착하시였습니다.

약방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주인에게 아버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를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편지와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저녁이 다 되여서야 집으로 향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중강나루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경찰놈들의 행패질을 받으며 강을 건너가고있었습니다. 당장 강을 건느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불을 피워놓고 그 추운 강가에서 밤을 새울 차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기어이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제9과
린쟝에서의 군사놀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린쟝에 계실 때에도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군사놀이를 많이 하시였습니다.

어느 봄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점심식사를 하시고 강안촌거리 학교운동장으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학교운동장에 이르시자

그곳에서 뛰놀던 동무들은 《대장이 나온다.》고 하면서 재빨리 줄을 지어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줄지어 선 동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의 군사놀이는 말타기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동무들을 두편으로 나누시고 편마다 말타기준비를 하게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말들을 만들고 그우에 날래고 힘이 센 동무들과 기발을 든 기수들을 태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쪽편의 대장이 되시여 말에 오르시였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시작!》 하고 구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타기가 시작되자 누구누구는 기수를 지키고 누구누구는 뒤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으라고 명령하시였습니다.

어떻게나 동무들을 잘 이끄시는지 경애하는 대원수님 편의 모든 동무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였습니다.

군사놀이가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저쪽편 동무

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와-》하고 달려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저쪽편 동무들을 속여 넘기시려고 큰소리로 누구누구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달려드는 《적》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저쪽편 동무들은 그것이 정말인줄 알고 그쪽으로 밀려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를 따라 앞으로!》 하고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반대쪽으로 재빨리 쳐들어가 저쪽편의 기수를 눕히고 기발을 빼앗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빼앗은 기발을 흔들며 제자리로 돌아오시였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적들을 쳐부시고 승리의 기세 드높이 돌아오는 장군같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놀이가 끝나자 동무들을 모여놓고 놀이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총화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군사놀이때마다 뛰여난 전술로 동무들을 이끄시여 매번 이기군 하시였습니다.

제 10과
탄약도 날라오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린장에 계시던 주체10(1921)년초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집에 함께 있던 동무는 얼음판에 나와 동무들과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 동무가 한창 썰매를 타고있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썰매에 자그마한 보따리를 싣고나와 중강객주집에 같이 갔다오자고 하시였습니다.

그 동무는 중요한 심부름을 가야 할 일이 있는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경찰놈들의 눈을 피하여 압록강을 건너 중강객주집으로 가시였습니다.

객주집주인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반갑게 맞아주며 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

께서 주신 보따리와 신발깔창밑에 넣었던 편지를 꺼내여 주인에게 주시였습니다.

객주집주인은 편지를 읽어본 다음 단단히 꾸린 짐 2개를 주며 경찰놈들에게 들키지 말고 조심히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알았다고 하시며 주인에게 인사하신 다음 객주집을 나서시였습니다.

밖에 나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경찰놈들의 눈에 띄우지 않으려고 사방을 살피며 압록강얼음판에 들어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얼음판을 건느시면서도 경찰놈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속여넘길것인가를 거듭 생각하시였습니다.

압록강을 무사히 건느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저녁에야 집에 들어서시였습니다.

그때 집에는 여러명의 손님들이 와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져오신 짐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다가 손님들이 간 다음 아버님께 드리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힘들었겠다고 하시며 나어린

대원수님께 어서 짐을 풀라고 하신 다음 밖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짐을 풀고 그안에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놓으시였습니다.

약봉지는 약장에 넣고 책들은 책꽂이에 세우시였습니다.

옆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일손을 돕고있던 동무는 아무런 생각없이 두터운 종이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곽 한개가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그안에 있던 탄알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누가 볼세라 그것을 재빨리 주어모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방에 들어오신 아버님께 드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와 비밀련락도 하고 탄약도 날라오시였습니다.

제11과
나에게 총을 하나 줘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린장에 오시여서도 일제경찰놈들이 총을 메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자주 보시였습니다.

그때마다 총이 있으면 왜놈들을 몽땅 잡아치울수 있겠다고 생각하군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총을 다루는 소리만 내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러 여러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웃방에서 아버님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이야기소리는 멎고 이번에는 절컥절컥 하고 총을 다루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잠을 자는줄 알았던 동생이 벌떡 일어나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이게 무슨 소리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때까지 등잔불밑에서 책을 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생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니? 왜놈을 쏘는 진짜총을 다루는 소리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웃방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나도 저런 총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왜놈들을 쏘아잡을수 있겠는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머리속에서는 총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총을 구할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외삼촌께서 뜻밖에 집에 찾아오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웃방에 올라가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외삼촌은 아버님으로부터 권총 두자루와 두툼한 책을 받아가지고 떠나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외삼촌에게 총은 왜 가지고 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외삼촌은 그 물으심에 평양에서 너의 아버지를 감옥에 끌고갔던 왜놈들을 쏘아죽이러 가지고 간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외삼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외삼촌! 나에게도 총을 하나 줄수 없나요. 나도 총만 있으면 그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몽땅 없애치울수 있어요. 외삼촌! 정말 나에게 총을 하나 줘요.》

외삼촌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누가 주는 총으로써가 아니라 네 손으로 왜놈의 총을 빼앗아가지고 그놈들을 때려없애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놈들의 총을 빼앗아 왜놈들을 모조리 때려부실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시였습니다.

제12과
조선식씨름으로

어느해 5월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련락임무를 받고 중강으로 건너가시였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씨름구경을 하려고 중강씨름터로 모여가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련락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동무들과 함께 씨름구경을 하려고 씨름터로 가시였습니다.

씨름터에서는 아이들의 씨름이 시작되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씨름을 아주 잘하신다는것을 알고 어서 씨름판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구경이나 하다가 가겠다고 하시며 자리에 앉으시였습니다.

씨름이 한창 재미있게 벌어지고있는데 큰 왜놈아이가 씨름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놈은 씨름판에 버티고 서서 저희네 일본식으로 씨름을 하였습니다.

왜놈의 씨름을 해보지 못한 중강아이들은 몇명이 나갔지만 한번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놈은 연거퍼 이기자 우쭐렁거리며 또 나오라고 으시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씨름판에 나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참을수 없어 그놈을 쏘아보며 씨름판으로 나가시였습니다.

씨름이 시작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을 바싹 끌어당기시면서 힘껏 들어 보기 좋게 메다꽂으시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집도 컸지만 그놈은 손쓸새도 없



중강씨름터

이 땅에 곤두박히고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왜놈아이가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도 그리고 또 다른 놈도 나오는족족 둘러메치시였습니다.

《잘한다. 왜놈들을 몽땅 저렇게 둘러메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구경하던 중강사람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며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씨름에서 연거퍼 진 왜놈아이들은 잔뜩 볼이 부어서 자기네 식대로 하지 않아서 졌다고 투덜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을 쏘아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놈아, 너희들 왜놈들은 너희 식대로 하고 조선사람인 나는 우리 조선식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너희들도 넘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다시 해볼테면 해보자!》

그러자 왜놈아이는 겁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고 또다시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왜놈아

이를 조선식씨름으로 번개같이 둘러메치시였습니다.

군중들은 또다시 기쁨에 넘쳐 《야-》하고 씨름판이 들썩하게 환성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선식씨름으로 왜놈아이들을 짓눌러놓으시였습니다.

제13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신 마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린장에 계실 때 마을에는 마씨성을 가진 늙은이가 살고있었습니다.

그 집은 자식이 없어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적적하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늙은이들은 아이들이 있는 집을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어느날 그 집 할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어머님께 아이들이 없이 늙은이만 사니 사람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며 눈물이 글썽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찾아가 아들겸 손자겸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지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그 할머니는 너무도 고마와 눈물까지 흘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다음부터 할머니네 집에 자주 찾아가시여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들을 즐겁게 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시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동무들까지 데리고가시여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주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집 할머니는 심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자식들도 없는데 할아버지마저 친척집에 가고 없어 할머니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앓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집 할머니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급히 찾아가시였습니다. 그 집 할머니는 찬방에서 앓음소리를 내며 누워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간호도 해주시였고 아버님께 말씀드려 귀한 약까지 가져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집 할머니의 병이 다 나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 돌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지극한 간호로 할머니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이 너무도 고마와 마을사람들에게 그때 있은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앓아서 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자식없는 설음이 일시에 북받쳐서 혼자서 울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때 **성주**가 찾아와서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겠소. **성주**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죽고말았을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제14과
집안의 기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도와 집안일을 스스로 찾아하시였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늘 앓는 몸으로 어려운 집안살림을 도맡아하시였습니다. 게다가 때없이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에게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느라니 어머님께서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실 때가 없으시였습니다.

겨울 어느날이였습니다.

집안살림을 도맡아하시던 어머님께서 병이 심하여 그만 자리에 눕게 되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혁명사업으로 집을 떠나시고 집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동생들만 계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앓으신다는것을 알고 이웃에 사는 어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의 병을 걱정하면서 자기들이 어머님을 돌보면서 부엌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였

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어머니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리면서 밥도 짓고 물도 길을테니 념려하지 마십시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날부터 어린 동생을 돌보시면서 물도 긷고 밥도 지으며 집안일을 알뜰히 해나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갈아대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리에 누우신지 이틀째 되는 날 밤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또 밤을 새우려고 곁에 앉으신 나어린 대원수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성주야, 이제는 내 병이 다 나았으니 걱정말고 좀 자거라.》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니! 걱정마세요. 어머니 병만 낫는다면 나는 열밤을 밝혀도 일없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버지도 집걱정하지 않으시고 일을 잘하실수 있고 또 우리도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지 않아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정성을 다해 돌봐드리시였기에 어머님께서는 앓아누우신지 얼마 안되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나서 혁명사업으로 집을 떠나시였던 아버님께서 돌아오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으로부터 그사이에 있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어린 대원수님을 못내 대견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우리 **성주**야 집안의 기둥인데 어데 그런 일만 있을라구.》라고 하시며 크게 칭찬해주시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집안의 기둥으로만이 아니라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날것을 바라시는 아버님의 마음이 깃들어있었습니다.

제15과
어려울 때 도와주는게 동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동무들과 화목하게 지내시였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모든 힘을 다해 도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놀이를 하다가 동무들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옷섶을 찢어서라도 동여매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앓는 동무가 있으면 꼭꼭 병문안도 가시고 약을 지어다 치료도 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성의껏 도와주시였습니다.

린쟝마을에는 곽가성을 가진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 동무의 어머니는 위병으로 몹시 앓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때식도 변변히 끓이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가 앓는 어머니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렵게 지낸다는것을 알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그 동무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너는 왜 집일을 숨기고있느냐.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돕고 우리모두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게 동무다. 그저 같이 다니고 말타기나 군사놀이를 같이 하는것이 동무가 아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것이 진짜동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동무를 힘껏 도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를 집으로 데리고가서 밥도 먹이고 어머님께 말씀드려 그의 어머니에게 미음도 쒀다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병을 고치라고 좋은 약도 지어다주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동무들을 데리고 그의 집을 찾아가시여 마당도 쓸어주고 나무도 패주시였습니다.

지어는 부엌에 있는 그릇들까지 말끔히 정돈해주시였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이 일이 너무 고마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집을 위해 애쓰는 **성주**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는 동무들이 찾아가면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동무를 사귀게 되여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것이 진짜 동무라는것을 자신의 모범으로 보여주시였습니다.

제16과
바다오거우로 이사가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10살 나시던 해 여름이였습니다.

린장에서 사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을 따라 바다오거우(8도구)로 이사를 가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중강동무들과 작별인사를 하려고 압록강을 건너가시였습니다.

중강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고 너무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겨맞는 동무들을 바라보시며 온 집안이 바다오거우로 이사간다는것을 알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중강동무들은 모두가 섭섭해하였습니다.

이날 동무들은 린장으로 건너가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래드리려고 주런이 따라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압록강으로 나가시면서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꿋꿋이 살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느덧 압록강나루터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래주려고 나온 동무들에게 이젠 그만 들어가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과 헤여져 멀리 가게 되는것도 다 일본놈들때문이다.

일본놈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뒤를 자주 밟기때문에 재작년에는 이 강을 건너 림강으로 갔는데 오늘은 또 멀리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일본놈들이 없어야 우리 조선사람들이 기를 펴고 살수 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압록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오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을 따라 바다오거우로 떠나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헤여지기 섭섭해하는 린쟝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역땅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너희들과 헤여지게 되니 나도 역시 섭섭하다. 우리들이 이렇게 헤여지게 되는것은 다 악귀같은 왜놈들때문이다.

…

너희들은 우리가 제 나라, 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낯설은 이국땅에 와서 나라없는 설음을 당하며 가난하게 사는것이 왜놈들때문이라는것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동무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헤여지는것이 아쉬워 마을사람들과 함께 멀리까지 따라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따라나온 그들과 다시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바다오거우를 향해 걸음을 다그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다오거우로 떠나시면서 중강과 린쟝동무들에게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였습니다.

제17과
압록강가에서 새기신 어머님말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에 오신지 며칠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생과 함께 빨래하러 가시는 어머님을 따라 압록강가로 나가시였습니다.

얼마후 빨래를 다하신 어머님께서는 김철주동생에게 물으시였습니다.

《저 강건너 땅이 어느 나라 땅이냐?》

동생은 《우리 조선땅이야요.》 하고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생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옳아, 철주가 잘 맞혔어. 저기 보이는것이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 나라는 경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란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어머님께서는 조국땅을 바라보시는 나어린 대원수님께 물으시였습니다.

《우리가 왜 조선땅에서 살지 못하고 낯설은 이국땅에 와서 살지 않으면 안되느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물으심에 큰 소리로 대답하시였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았기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아주 잘 안다고 칭찬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너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땅으로 쫓겨오는 인민의 저 피타는 통곡소리와 신음소리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왜놈들을 몰아내고 인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찌 조선의 아들이라 하겠느냐.》

어머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슴속에는 일제원쑤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나어린 대원수님을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이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동지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이국땅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시며 싸워가시는 것도 왜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찾기 위해서며 인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너도 어서 커서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싸워야 한다. 알겠느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잘 알겠다고 힘있게 대답하시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며 동무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일을 더 잘 도와드려야겠다.

우리 조선사람을 못살게 구는 왜놈들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느냐. 우리들의 나이 열살이면 어리지 않다. 아버지의 일을 잘 도우면 왜놈을 빨리 몰아낼수 있고 우리도 용감한 사람이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머님의 말씀대로 아버님을 돕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찾으실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제18과
뛰여나게 공부를 잘하시여

바다오거우에 이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얼마후 바다오거우소학교에 들어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들어가신 첫날부터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학습을 꾸준히 하시였습니다.

언제나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시여 어머님께

먼저 보이신 다음 아버님께 보이시고 그대로 학습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학습계획대로 그날 배운것을 익히며 숙제를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배울 내용까지 미리 공부하시였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였는데 책을 한번 잡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읽으시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든 과목을 다 뛰여나게 잘하시여 선생님들도 놀라게 하시였습니다.

한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학급을 담임한 선생님이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여 다른 선생님이 배워주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산수시간에 어려운 산수문제 하나가 잘 풀리지 않아 칠판에 썼다가는 지우고 또 썼다가는 지우고 하면서 애를 먹고있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일어나 선생님에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풀어보게 하는것이 어떤가고 말하

였습니다.

선생님은 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칠판앞에 나가시여 그 문제를 정확히 풀어놓고 알기 쉽게 설명까지 하시였습니다.

그리자 학생들은 《야-》 하고 환성을 올리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러러보았고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소학교에 다니시는 기간에 학기말시험과 학년말시험은 물론 중간시험에서도 매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게시판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시험지가 모범답안지로 나붙군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학생들이 게시판앞에 모여 그 시험지를 보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다오거우소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이름을 떨치시였습니다.

제19과
고향을 그리워하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 소학교 2학년에 다니시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압록강으로 나가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강에서 헤엄도 치고 물싸움도 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한동안 놀고난 동무들은 강가에 있는 바위우에 모여앉아 강건너 조국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재미나는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고향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고향에는 그리운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계신다고 하시면서 만경대이야기를 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경대에는 군함바위와 썰매바위도 있고 동무들과 함께 군사

놀이를 하던 만경봉도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만경봉에 올라서면 사방이 탁 트이여 평양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압록강건너 조국의 산발들을 정겹게 바라보시였습니다.

그리시다가 평양에는 모란봉이 있는데 그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와 금수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처럼 아름답고 정다운 고향이 지금은 일제놈들에게 짓밟히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빼앗긴 나라와 자기 고향을 다시 찾자면 앞으로 왜놈들을 쳐부시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평양의 오랜 력사와 평양을 지켜싸운 우리 인민들의 투쟁이야기도 들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어찌나 이야기를 재미

있게 잘하시는지 동무들은 해가 지는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거의나 경애하는 대원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학년도 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자기의 부모들이 아름다운 조국과 정든 고향을 버리고 남의 나라땅에 와서 살게 되였는가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였으며 빼앗긴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고향 만경대를 그리워하시면서 동무들도 자기 고향과 조국을 잊지 않도록 하시였습니다.

제20과
학교를 꾸리는데서도 모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소학교에 다니시던 어느해 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봄을 맞으며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루종일 힘들게 만든 꽃밭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꽃밭을 더 잘 만들겠는가를 생각하던 끝에 이 일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맡기였습니다.

꽃밭을 고쳐만들 과업을 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운동장에 나가 꽃밭을 만들 자리를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얼마만한 크기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는가를 생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교실에 들어오시여 종이에 다시 만들 꽃밭을 그리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을 꽃도 하나하나 정하시였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분공을 주시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꽃밭을 반듯하게 만들게 하시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꽃밭둘레를 아름답고 보기 좋게 꾸릴 분공을 주시였습니다.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고운 꽃씨와 꽃나무를 구해오게 하시였습니다.

분공이 어찌나 구체적이였던지 모든 학생들이 꽃밭을 만드는데 달라붙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꽃밭은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꽃밭에서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났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학교에 오고갈 때마다 꽃밭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만드신 꽃밭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소학교에 다니실 때 그 학교운동장에는 철봉대가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이것을 만들 결심을 하시고 모든 학급들에서 철관과 나무들을 구해오게 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분공대로 나무와 철관들을 구해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의 키에 맞게 여러개의 철봉대를 만드시였습니다.

그리고 축구꼴문대와 목마도 만들어놓으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공부가 끝나면 앞을 다투어 운동장에 나와 철봉도 하고 목마도 뛰여넘었으며 뽈차기도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교를 꾸리는데서도 모범을 보이시였습니다.

제21과
순사놈의 말문이 막히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에서도 동무들과 재미나는 군사놀이를 자주 하시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날도 동무들과 함께

마을뒤산에서 군사놀이를 하시였습니다.

군사놀이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선편》동무들은 두손을 흔들며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습니다.

군사놀이를 마친 동무들은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지켜보던 순사놈이 모두 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놈은 포평에서 건너온 순사놈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멈춰서자 그놈은 다가와 큰소리로 왜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는가고 따져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놈을 쏘아보시다가 앞으로 나서며 그건 왜 묻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순사놈은 발을 탕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조선독립 만세!〉를 마음대로 부르라고 했는가?》

아이들은 당장 무슨 벼락이라도 떨어질것 같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금도 겁내지 않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에게 군사놀이에서 《조선편》이 이겨서 조선사람인 우리가 조선 만세를 불렀는데 무엇이 잘못되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대답을 못하던 그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조선독립 만세!》를 어디서 배웠는가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에서 들었다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그놈은 더 바싹 다가서며 조선 어디서 사는 누구에게서 들었는가고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3.1인민봉기때 거리에 나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는것을 보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는가고 쏘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조선사람이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면 왜 안되는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순사놈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말을 잘하는것을 보니 조선순사 같은데 조선순사들은 어느 나라 만세를 부르는가고 련속 따지시였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는 순사놈을 보며 동무들은 깨고소해하였습니다.

쩔쩔 매던 순사놈은 더 있다가는 아이들앞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할것 같아 달아나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렇게 순사놈의 말문이 막히게 하신 다음부터 바다오거우 아이들은 《조선독립 만세!》를 더욱 힘차게 불렀습니다.

제22과
조선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소학교에 다니시던 초시기 학교의 조선학생들과 중국학생들사이에는 이따금씩 서로 다투는 일이 있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보실 때면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친절히 타일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두 나라 학생들은 다같이 가난하게 사는 형제들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나라 학생들은 서로 힘을 합쳐 왜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꾸준한 타이르심을 받은 두 나라 학생들은 한동안 사이좋게 지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선학생들과 중국학생들사이에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 선생님이 곧 그들모두를 학교안으로 불러들여 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다같이 욕하는것이 아니라 조

선학생들에게만 왜 싸웠는가고 따지며 욕하였습니다.

조선학생들은 그날 선생님에게서 한참동안이나 욕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이 서로 다투게 된 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툰것은 다같이 잘못한것이기때문에 다툰 학생들은 조선학생이건 중국학생이건 차별하지 말고 타일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앞으로 조선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대신 중국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잘 교양해주십시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은 교장선생님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조선학생들은 물론 중국학생들과 친숙하게 지내시면서 서로 싸우

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오거우소학교 학생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없이 다같이 친하게 지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조선학생들과 중국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다같이 사랑하며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23과
경찰 아들놈을 혼내우신 이야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의 자식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을 업신여기는것을 보시면 조금도 용서치 않으시였습니다.

바다오거우소학교에는 《장키다리》라는 별명을 가진 경찰 아들놈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성격이 사나운 이놈은 가난한 조선아이들만 보면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놈을 한번 단단히 혼내주리라 다짐하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장키다리》놈은 길가에서 노는 조선아이들을 보고 《조선거지》라고 놀려대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시다가 이것을 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을 부르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무엇때문에 조선아이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가고 따져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장키다리》는 제힘을 믿고 내가 아무렇게 놀든 무슨 상관이냐는듯 맞섰습니다.

그놈은 다른 아이들에게 하던것처럼 감히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더는 참을수 없어 달려드는 그놈에게 벼락같이 된매를 안기시였습니다.

그놈은 얼마나 되게 맞았던지 다시는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비실비실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을 붙잡아 세우시고 엄하게 꾸짖으시였습니다.

《조선아이들은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고향을 떠나온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지금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힘을 키우고있다.》

그러시면서 조선아이들을 업신여기며 못되게 노는것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인민을 못살게 구는 왜놈과 꼭같은 행동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찰 아들놈은 머리를 숙인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그놈에게 따져 물으시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행동을 할 때에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다.

어디 말해보아라, 다시 그런짓을 하겠는가?》

그놈은 제발 잘못했으니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다시는 조선아이들을 업신여기거나 못살게 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께서는 낮에 있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어린 대원수님께 《잘했다! 조선사람을 멸시하는 놈은 그렇게 혼내주어야 한다. 더우기

그놈이 왜놈들과 한짝이 되여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경찰의 아들놈이라니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조선아이들에게 못되게 노는 놈들은 혼쌀을 내주군 하시였습니다.

제24과
어머님께 사다드리신 고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뜨거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에 계시던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토방을 거두시다가 구석에 숨겨둔 신발을 보게 되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곳을 기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신발이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들이 꿰진 신발을 보시면 걱정하실가봐 방에 들어가실 때에는 신발을 벗어 토방구석에 감추어두군 하시였습니다.

나어린 대원수님의 신발을 보신 어머님의 가슴은 몹시 아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어린 대원수님께 한푼두푼 모아두었던 돈을 주시면서 포평에 건너가 운동화를 사신으라고 하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발은 아직 더 기워 신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주시는 돈을 받지 않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어이 돈을 쥐여주시면서 어서 사신으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더는 어쩔수 없으시여 돈을 받아가지고 포평상점으로 가시였습니다.

상점에는 아이들의 운동화와 어른들의 고무신이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상점에서 운동화 한컬레를 받아 신어보시였습니다.

운동화는 미리 골라두기라도 한것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오가며 뛰놀 생각을 하니 참으로 기쁘시였습니다.

그러나 매대에 놓여있는 녀자고무신을 보시는

순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눈앞에는 어머님의 낡은 고무신이 떠오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신으시였던 운동화를 벗어놓고 어머님의 발에 맞을 고무신을 골라 사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새 고무신을 신으신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오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어머님앞에 고무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아니, 네 신발을 사라고 했는데 웬 고무신을 사왔느냐.》 하고 가볍게 나무라시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제 신은 해지긴 했지만 아직 몇번 더 기워신을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신은 더 말이 아니예요.》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의 뜨거운 말씀에 목이 메여 더는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시절에 자신보다 어머님을 먼저 생각하시였습니다.

제25과
마사버린 《상공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동무들에게 귀신이 없다는것을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시였습니다.

어느 봄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사놀이를 하기 위하여 동무들을 데리고 바다오거우 뒤산으로 올라가시였습니다.

그때 뒤산에는 제사를 지내는《상공당》이 있었습니다. 《상공당》안에는 울긋불긋한 천쪼박들이 걸려있고 제사를 지내는 돌판우에는 여러가지 음식들이 놓여있었습니다.

뒤산으로 오르던 동무들은 잠시 멈춰서서 《상공당》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상공당》안을 가리키며 이곳을 마음대로 지나거나 상우에 놓은 음식에 손을 대면 《귀신》한테 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놀지 말고 빨리 다른 곳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나서며 밤마다 이곳에 《귀신》이 나타나 시퍼런 도깨비불을 켜들고 돌아가는 것을 자기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동무들의 말을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귀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나 《귀신》불을 보았다고 하는것은 썩은 나무그루터기나 짐승뼈에서 나는 불빛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겁나하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귀신》이 없다는것을 직접 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상공당》안에 있는 떡을 집어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펄쩍 뛰면서 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귀신》의 벌을 받으면 어쩔려고 그러는가고 하면서 떡을 빨리 제자리에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내 오늘 〈상공당〉을 마사버릴테니 보아라. 〈귀신〉이 있다면 내가 벌을 받을것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상공당》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놓고 걸려있던 천쪼박들도 뜯어내여 짓밟아버리시였습니다.

겁에 질린 동무들은 너무 무서워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동무들을 만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얘들아, 〈귀신〉이 정말 있는가 보려무나. 내가 어제 〈상공당〉을 마사버렸어도 아무 일 없지 않느냐. 〈귀신〉이 있다면 내가 아마 벌써 벌을 받고 남았을것이다. 〈상공당〉을 마사버렸어도 덤벼들지 못하는걸 보니 그 귀신은 정말 머저리 〈귀신〉이로구나.》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동무들은 《귀신》이 없다는것을 점차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미신을 믿지 않게 되였습니다.

제26과
작문 《우리 나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실 때 작문을 아주 잘 지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지으신 작문은 어느것이나 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 조국땅에 인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지으신 작문들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크게 감동시키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소학교에 다니시던 어느해 말이였습니다.

동무들은 모여앉아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시였습니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에 대하여 글로 써보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나라》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썼다가는 지우고 지우고는 또 썼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작문을 다 짓자 몇동무에게 자기들이 지은 작문을 읽게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문들에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씌여있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친히 지으신 작문 《우리 나라》를 읽어주시였습니다.

작문에는 이렇게 씌여있었습니다.

《… 우리 나라는 참말 아름다운 나라이다. 백두산으로부터 한나산까지 가는 곳마다 오곡이 무르익고 백과가 주렁진다. 우리 나라는 아름다와 예로부터 금수강산으로 불리온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욱실거리고 땅속에는 보물이 많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민은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살고있다고 하시였습

니다. 지어 아름다운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땅에 와서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쓰시였습니다.

《우리가 왜 낯설은 이국땅에 와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것은 왜놈들이 아름답고 풍요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기름진 땅에서 나는 곡식, 땅속에서 나는 지하자원을 빼앗아가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왜놈을 쳐부시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찾아야 한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라를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작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작문을 잘 짓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지으신 작문은 우리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기어이 나라를 찾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하는 작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작문을 하나 지어도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으시였습니다.

제27과
비밀련락을 맡아하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소학교에 다니시면서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와드리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하여 여러곳을 쉬임없이 다니시였고 때로는 사람을 띄워 련락을 보내기도 하시였습니다.

어느해 추운 겨울 밤이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포평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련락을 보내야 할 일이 생기자 나어린 대원수님을 보내기로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주신 비밀쪽지를 가지고 동무와 함께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밤은 어두운데 눈보라까지 몰아쳐 앞을 가려볼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동무와 함께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압록강가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에게 앞서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알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께서도 《같이 가자.》라고 소리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치시여 얼어붙은 압록강을 다 건너서시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놈이 나타나 서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재빨리 신발을 벗으시고 그속에 비밀쪽지를 감추시였습니다.

잠시후 경찰놈이 다가왔습니다.

그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같이 가는 동무의 몸을 차례로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때문에 밤에 강을 건너왔는가, 어디로 가는가고 따져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금도 겁나하지 않으시고 포평에 사는 친척이 갑자기 앓아서 약을 가

지고 간다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주머니에서 약봉지까지 꺼내여 보이시였습니다.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경찰놈은 다시는 밤에 다니지 말라고 하며 빨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함께 가던 동무는 그제야 《후-》 하고 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비밀쪽지가 발각되지 않았으니 그렇지 큰일날번 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까짓 경찰놈들이 열놈이 달려들어도 편지가 어데 있는지 알아낼수야 없지.》

그리시면서 신발밑창에 감추었던 비밀쪽지를 꺼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날 아버님께서 주신 비밀쪽지를 포평에 있는 사람에게 무사히 전하고 집으로 돌아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뛰여난 생각으로 아버님을 도와 비밀련락을 훌륭히 수행하군 하시였습니다.

제28과
야장간할아버지를 도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다오거우에 계실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옆집에는 야장일을 하는 중국할아버지가 살고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쇠붙이를 모아다가 낫과 호미, 도끼와 칼 같은것을 만들어 팔거나 농민들이 가져오는 낡은 농기구들을 벼리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일하는 야장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마치질소리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힘들게 일하는 야장간할아버지를 무척 존경하며 도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자주 야장간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그 할아버지를 도와 풀무질도 하시고 일터도 깨끗이 거두어주시였습니다.

어떤 때는 동무들과 함께 거리와 마을에 널려있는 쇠붙이도 모아다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여 집안팎을 거두시고는 야장간할아버지네 마당까지 깨끗이 쓸어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좋은 일을 더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시였습니다.

거리에 나갔다가 쇠붙이를 보시면 주어다 집에 두시였으며 아침마다 마당비와 삼태기를 부엌문옆에 놓아주시였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야장간할아버지의 일을 더 잘 도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마음씨에 감동된 야장간할아버지는 대원수님께서 야장간에 오실 때면 《그저 **성주**가 와야 일이 성수가 나거든. **성주**야, 너는 정말 우리 마을의 보배로구나.》하고 대원수님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놀이때 쓰라고 칼집까지 만들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살림집 길건너에 사는 김로인도 힘껏 도와주시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국수를 몇그릇씩 만들어 팔면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집 로인들이 힘들어한다는것을 아시고 자주 찾아가 망질도 해주고 국수 누르는 일도 도와주시였습니다.

그래서 김로인은 《큰일을 할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르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날때마다 칭찬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에 땀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힘껏 도우시여 그들로부터 끝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였습니다.

제29과
조국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2살 나시던 해에 바다오거우소학교를 졸업하게 되시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앞날에 대하여 자주 생각해보군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부르심을 받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인차 학교를 졸업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상급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싶다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뜻밖이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에 나가 공부하려면 아버님과 어머님의 품을 떠나야 하셨기때문이였습니다.

옆에서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님께서도 놀라시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가까운데 보내서 공부하게 하면 안되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은 섭섭하고 허전하더라도 나어린 대원수님을 조선에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조선에서 태여난 남자라면 반드시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선에 나가 우리 나라가 왜 망하였는가를 똑똑히 알고 우리 인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있는가를 직접 보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것을 알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대로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의 길떠날 준비를 갖추시였습니다. 나어린 대원수님께서 입고갈 두루마기도 짓고 새 버선도 만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님의 건강을 걱정하여 이제는 그만 주무시라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정겹게 바라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네가 떠나는 길이 멀고 험한 길이다. 그러나 의지만 강하면 어떤 고난도 뚫고나갈수 있는 법이다.

춥고 배고플 때도 다리 아프고 기운이 진할 때도

외롭거나 무서울 때도 조국을 찾기 위해 조국을 배우고 조국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그러면 기운이 날게다.》

그러시면서 만경대에 가면 아버님말씀대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말씀대로 조국에 나가 열심히 배우리라 다짐하시였습니다.

제30과
조국으로 떠나시던 날

주체12(1923)년 3월 16일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아침 만경대를 향하여 바다오거우를 떠나게 되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먼길을 떠나시는 나어린 대원수님께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은 우선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를 잘 알자면 우리 인민들이 겪고있는 비

참한 처지를 알아야 한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얼마간의 돈과 만경대까지 가는 길을 적은 수첩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보는 두번 치되 한번은 강계에서 치고 다음번은 평양에 가서 치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떠날 준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앞세우고 부모님과 김철주동생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동무들이 따라나섰습니다.

이날 날씨는 눈보라를 날리며 몹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의 목도리를 고쳐감아주시며 《만경대에 가면 할아버님, 할머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리고 편지도 자주 하여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며 동생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습니다.

이때 동생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며칠전에 어머님께서 사다주신 새 보자기를 책보로 쓰시라고 하면

서 드리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려하지 않으시였습니다.

곁에서 보고계시던 어머님께서는 동생의 소원인데 받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의 성의를 막을수 없어 그 책보자기를 받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생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도 앞으로 좋은 세상이 꼭 온다는것을 굳게 믿고 공부를 잘하라고 몇번이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들과 동네어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신 다음 동무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바다오거우나루터를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12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을 더 잘 배우실 결심을 품으시고 조국을 향해 바다오거우를 떠나시였습니다.

제31과
배움의 천리길

주체12(1923)년 3월 16일 아침 바다오거우를 떠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 포평에 이르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헤여지는것이 너무 섭섭하여 후창남쪽까지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고 몇번씩 말씀하시여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월탄리를 지나고 높고 험한 오가산령을 넘으시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종일 가도 집 한채 없고 해빛조차 비치지 않는 산골길을 걷기도 하시였습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몹시 추워서 온몸은 꽁꽁 얼어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이겨내시며 걷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길에서 일제와 지주놈들때문에 고향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수많

이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놈들이 조선사람을 붙잡아가는것도 보고 우리 나라의 나무를 마구 찍어가는것도 보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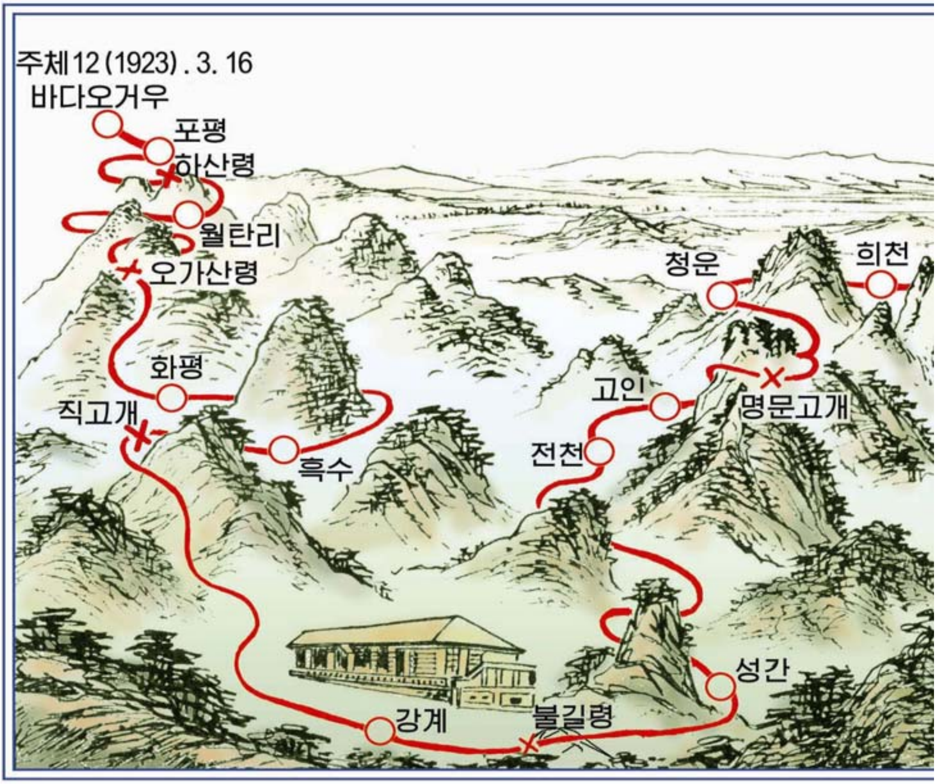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 해진 옷을 입고 무너져가는 오막살이집에서 굶주리며 사는 우리 인민들을 보시였습니다.

조국의 모습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집을 떠난지 며칠만에 강계에 이르시였습니다.



강계우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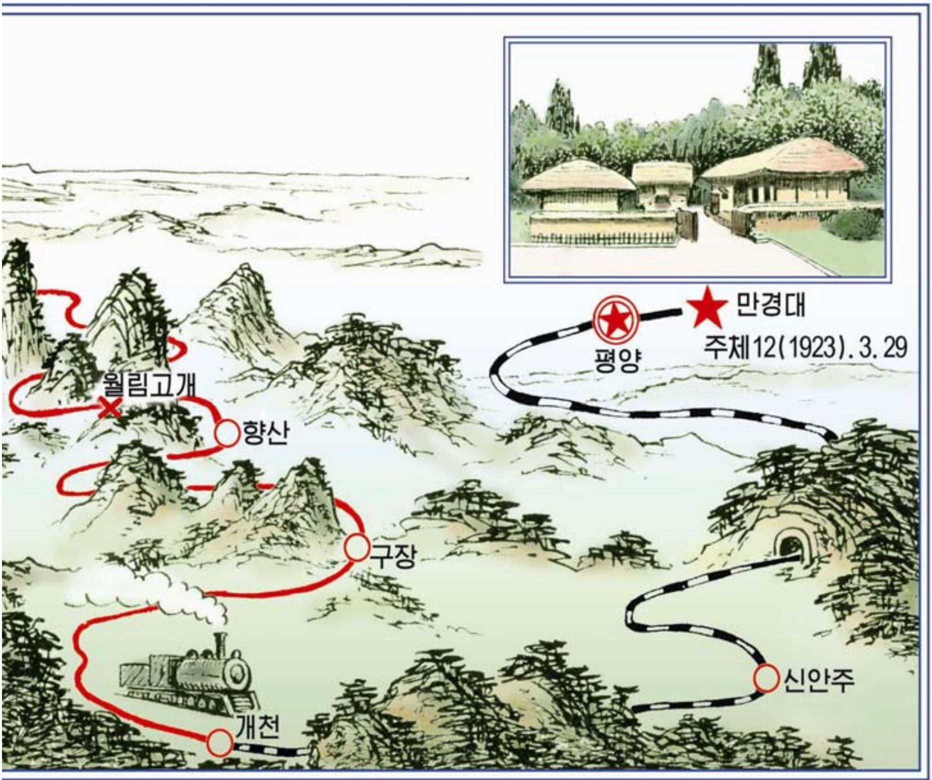
배움의 천리길

강계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정해주신 강계객주집으로 가시였습니다.

객주집주인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반갑게 맞아주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드리였습니다.

식사도 정성껏 차려주고 따뜻한 아래목에 새 이불을 펴드리며 잘 도와주었습니다.

객주집에서 하루밤 주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로정도

서는 강계우편국에 가시여 아버님께 전보를 치시였습니다.

여섯자가 넘으면 1전씩 더 받는다고 하여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글자의 전보를 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아침 강계를 떠나시였습니다.

강계를 떠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성간, 전천을 지나시고 눈덮인 험한 명문고개를 넘으시였습니다.

그리고 희천, 향산, 구장을 거쳐 개천에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개천에 있는 서선려관에서 하루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개천역에 나가시여 빽빽이차를 타고 신안주까지 가시였습니다.

신안주에서 다시 큰 기차를 갈아타고 평양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두번째로 아버님께 전보를 치고 만경대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제 32과
만경대고향집에 이르시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를 떠나 14일만인 주체12(1923)년 3월 29일 그리운 고향 만경대에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큰소리로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부르시며 고향집뜨락으로 들어서시였습니다.

나어린 대원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할머님께서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대원수님을 끌어안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너무도 반가와 누구하고 함께 왔니, 무얼 타고 왔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다 잘 있느냐고 대답할 사이도 없이 거듭 물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머니, 혼자서 걸어 나왔습니다.》라고 하시며 할머님의 물으심에 대답을 드리시였습니다.

방안에서 멍석을 트시던 할아버님께서도 뛰여나오시여 나어린 대원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 어쩔줄

몰라하시였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께서 혼자 걸어오셨다는 대답이 믿어지지 않으시여《아니, 네가 정말 혼자서 왔단 말이냐!》라고 하시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참 할머니도 … 내 나이 어리다고 두 나라 지경이야 혼자 못 다니겠어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하신 얼굴에 웃음을 담으시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래! 신통히 너두 통이 큰 너의 아버지를 닮았구나! 네가 아마 몇해후면 백두산에 걸터앉아 동해바다에다 대고 발을 씻자고 할게다!》

할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어린 대원수님을 바라보실뿐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님, 할머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8도구를 떠날 때는 천리길이 얼마나 멀가 하고 생각했는데 정작 걸어보니 별게 아니예요. 2천리, 3천리라도 걷겠어요.》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의 말

씀에 더 크게 감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의 집안소식을 전하시고 오면서 쓰고 남은 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 돈은 바다오거우를 떠나실 때 가면서 쓰라고 아버님께서 주신 돈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려운 집안살림을 생각하여 그 돈을 아껴쓰시였던것입니다.

할머님께서는 그 멀고 험한 천리길을 걸어오면서 돈까지 남겨 내놓는 나어린 대원수님이 참으로 기특하게 여겨지시였습니다.

그동안 몰라보게 자라신 나어린 대원수님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할아버님께서는《그래 며칠이나 쉬여가려니?》 하고 물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며칠간 놀러 온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왔다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조선사람은 조선땅에서 조선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대원수님께서 나이는 어리지만 큰뜻

을 품고있다고 생각하시며 무척 대견해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듯 큰 뜻을 품으시고 조국땅에서 열심히 배우리라 굳은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3학년용)

제3판

집 필 리정운, 김영식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리 철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9(2010)년 3월 5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월 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월 일

교－12－보－608　　값 원